

# 한화시스템, 3000t급 잠수함도 지상서 항해·전술훈련 ‘거뜰’

도산안창호합 훈련장 개발·구축  
다기능 콘솔 등 실제 함정장비 배치  
첨단기술로 입체적 훈련환경 지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개발로 앞으로 지상에서도 잠수함 훈련이 가능해진다.

한화시스템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1)의 모의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작업을 끝내고 지난달 말 본격 운용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잠수함 전술훈련장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술훈련장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항해·전술 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훈련실과 통제실, 강평실 등 여러 공간을 나눠 구성했고,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해양·수중·음탐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승조원이 해상에 나가지 않고도 수중 항해, 무장운용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훈련실은 함정 전투체계(CMS)를 운용하는 다기능 콘솔, 항해 콘솔 등 실제 도산안창호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전투지휘실과 동일하게 구성돼 항해·전술 훈련의 실감도를 높였다. 소나(음파탐지기) 신호를 포함한 함정에 탑재된 센서, 무장 등의 시뮬레이터도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 사업대표(왼쪽 세번째), 강정호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장(왼쪽 네번째·잠수함사령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도산안창호급 전술훈련장 개장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장 상황을 100%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전술훈련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적용돼 보다 입체적인 훈련 환경을 지원한다. 기존 잠수함 전술훈련장과 달리 AI 알고리즘이 자함의 추적·회피를 판단 후 예측 불가능하고 다면적인 기동·교전 상황을 제공해 우리 해군이 다양한 상황에서 전투지휘 및 전술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지난 2018년 국내 설계·기술로 건조된 첫 3000톤급 잠수함으로,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사업인 장보고-III(KSS-III) 사업을

통해 개발된 잠수함 중 하나다.

한화시스템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중 작전 수행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2018년 10월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I 전술훈련장비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잠수함사령부의 지원과 함께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잠수함 전술훈련장 국산화에 성공했다.

박도현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 사업대표는 “유령·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로의 잠수함 전투체계와 전술훈련장을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 활로 또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포스코, 실리콘음극재 공장 준공... 연산 550t

전기차 27만5000대 생산 규모

포스코그룹이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사업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19일 포항영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톤 규모 실리콘음극재(SiOx) 공장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객사의 실리콘음극재 공급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준공한 설비는 전체 생산 라인 중 하공정에 해당한다.

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를 4배 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실리콘음극재 시장 규모는 현재 약 1만톤 수준에서 2035년 약 28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은 음극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실리콘음극재 기술 스타트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하고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4월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양성운 기자



SK C&C가 23일 공개한 제조 특화 AI SHE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습.

/SK C&C

## 전력기기 호황에, 1분기 매출 8010억 달성

### HD현대일렉트릭

영업익 1288억... 전년비 178% ↑  
공장증설 등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23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1분기 매출 8010억원, 영업이익 12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9%, 영업이익은 17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판매가격 상승분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16.1%를 기록했다.

제품별로 보면 전력기기 부문이 지속적인 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전년 동



HD현대일렉트릭의 작업자들이 'HD현대일렉트릭 울산 변압기 스마트 공장 투어'에서 코스 크 작동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기 대비 70.4% 크게 증가했다. 회전기기 및 배전기기 매출 역시 전년 대비 각각 32.2%, 52.8%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1분기 수주는 14억 3800만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37억 4300만 달러의

38.4%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0억 76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공장 설립을 통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2025년 10월까지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1173억원을 투자해 중저압차단기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 능력은 2030년 기준 약 1300만대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의 생산 능력은 현재의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과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변압기 공장에 각각 272억원, 18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약 20%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 SK C&C, 제조 산업현장 AI로 지킨다

‘아이팩츠 SHE’ 안전 플랫폼 공개

SK C&C가 23일 제조 특화 AI SHE 플랫폼 ‘아이팩츠 SHE(iFacts SHE)’를 공개했다.

‘아이팩츠 SHE’는 SK C&C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살아온 SHE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조 산업 특화 SHE(Safety·Health·Environment, 안전·보건·환경) 플랫폼이다. SK C&C는 ‘아이팩츠 SHE’에 전 제조 산업군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SHE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6대 핵심 기능을 탑재했다.

작업 현장 특화 기능으로 ▲안전 작

업허가서 발급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안전관리’ ▲재해사고 및 아차사고를 대비한 ‘사고 관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화학물질 인벤토리와 규제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검토를 하는 ‘화학물질관리’ ▲대기·수질 관리 및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관리’를 구성했다.

공통 SHE 기능은 ▲직원 특수 건강 검진 계획 및 결과 관리,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보건관리’ ▲무재해 관리, 안전 KPI 관리, 법규 및 안전 정보를 관리하는 ‘SHE 경영’을 추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LG CNS, 구글 서비스 파트너 2년 연속 선정

게임·물류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즈 2024에서 ‘서비스 파트너(Services Partner of the Year)’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워즈는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며, 또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수여한다.

LG CNS는 지난해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등 구글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적용해 디지털전환(DX)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AM)를 선도한 점을 인

정받았다. 게임, 물류,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LG CNS는 지난해 국내 A사가 구글 클라우드에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A사는 AI 모델 학습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글로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B사의 경우, 고객상담서비스에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플랫폼을 결합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김서현 기자

## SKT, 에이닷 ‘통역콜’ 국제전화서도 쓴다

국내통화요금 동일 수준 혜택 제공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제휴해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전화로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통화요금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S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에이닷 전

화에서 00700 또는 +국가코드로 국제전화를 발신하고, 통역콜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역콜을 사용하면 국내통화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분당 108원(VAT 별도)의 요금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요금 혜택은 전 국가 대상이며 별도의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2024년 4월 23일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기존 00700 국제전화요금제(SK텔레콤 00700 프리 부가 서비스, SK텔레콤·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제전화 기본 제공량에서 차감된 후 초과 사용량에 대해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해외·리조트나 유명 맛집에 예약하기 위해 현지 예약 담당자와 통화할 때 국제전화에 대한 요금 부담 없이 에이닷 통역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휴가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들에게 요긴한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